

〈분석방법 이해하기〉 - “지문”

① 제일 중요한 내용

정의(개념), 의문제기(답), 결과(인과), 계산식, 비례&반비례(~수록 ~하다), 문제상황&해결방안 조건(가정 ; ~면[~ 경우, ~때, ~따라] ~하다)

① 제일 중요한 내용

: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 >로 표시합니다. 밑줄을 긋고 굵게 표시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나 적어도 어떤 기준으로 밑줄을 긋고 굵게 표시하는지는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시험장에서 막힘없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기준이 없다면, 선생님의 기준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  
긴 지문일수록 정보들의 위계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 >에 해당하는 미시 독해의 핵심 원리들은, 표시하는 동시에 꼭 이해하며 읽어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의(개념) - Definition

: 정의는 지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선지에서 개념의 정의 자체를 그대로 끌고 와서 워딩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내용 일치-불일치 형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정의엔 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은 < >로 처리하여 개념을 확인하면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선지에서 다시 지문으로 올 때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의문제기(답) - Question & Answer

: 의문을 제기하는 유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서 앞으로 나올 내용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독자에게 의문을 제기하며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장과 중간 부분에서 핵심 내용을 심화하기 위해 논지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죠. 대개 처음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내용을 짐작하며 읽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읽으면 됩니다. 물론, 보통은 답은 바로 나오는 편이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 답이 이후 어떻게 구체화되고 심화되는지를 잘 따라가면 3점짜리 어려운 문항에 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간 이하에서 나오는 의문제기&답변의 유형은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자체가 핵심이 되죠. 중간 이하에서 질문을 제기할 땐 처음에 던져놓은 화두를 바탕으로 구체화한 개념을 한 단계 심화해서 어렵게 접근하려는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보기> 문항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인과) - Effect

: 인과는 사실 '원인'과 '결과' 모두가 중요합니다. 실제 선지에선 둘 다 중요한 비중으로 오답과 정답의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원인과 결과의 기호를 구분한 이유는 실제로 문장에서 위계를 나눌 땐 그 문단의 결과 문장에 주목하면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도 원인과 결과를 나눠서 상황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 체계를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보통, '따라서, 그 결과, 결국, 그리하여~' 등의 표시어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문장들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

계산식 - Formula

: 계산식은 반드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출제됩니다. 글로 써진 수식들은 분수나 공식으로 바꾸어 정리해두면 비례&반비례 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편리하죠. 이 때, 계산식의 변수들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꼭 이해하며 독해해야 합니다.

비례 - Proportion & 반비례 - Inverse Proportion

: 비례&반비례 개념이 나올 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살표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하고, 시험지의 빈 공간에 개념들을 정리해서 일련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통 '~수록 ~하다'라는 문장으로 표시되니 이런 표현이 나오면 별표부터!

문제상황 - Problem & 해결방안 - Solution

: 수능 독서 지문의 목표는 대개 주어진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구체화되거나 심화된 내용을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갈래를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땐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지 또 그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해결 양상에 주

목하여 독해를 하면 고난도 지문의 독해를 완성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 조건(If) – If/Condition

: 조건문은 과학/기술/사회 지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들 지문은 내용이 생소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제시한 후 결과를 이어서 제시합니다. 조건문의 경우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출제 포인트가 되므로 꼭 연결해서 확인해야 하죠. 인과와 유사하게 조건과 결과는 글의 타당성을 보충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보통 ‘~면, ~ 경우, ~할 때, ~따라’ 등의 표지어로 확인이 가능해요.

#### ② 생략 가능한 내용

예시, 가정(~라고 하자)

계산, 구체적 수치, 원인(인과), 부연

### ② 생략 가능한 내용

: ( )는 기호의 원래 쓰임 그대로 생략 가능한 내용을 표시하는 데 쓰입니다. 물론, 수능 독서 지문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없습니다. 막상 선지에선 지문의 모든 문장이 출제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독해를 하는 과정에선 특히, 긴 지문의 경우에는 정보의 위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막상 ( )의 내용들 중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괄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되는 내용’일 때와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일 때입니다. 재진술된 정보들이요. 보통 예시와 가정이 나올 땐 앞에 나온 정의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앞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면 예시와 가정은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례이므로 괄호하고 눈으로 읽어가며 독해도 됩니다.

또,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핵심 워딩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장에서 긴 지문의 세부 정보를 세세히 다 이해하며 읽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러므로 지문의 위계를 잡고 세부 정보는 문제를 풀 때 다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예시(Ex) – Example

: 예시는 지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이 나올 경우 지문에서는 꼭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 이 때 1~2줄 정도의 예시는 가볍게 괄호하고 눈으로 읽으며 가면 됩니다. 그러나, 3~4줄 이상의 세부적인 정보들이 가득 찬 예시가 제시될 경우엔 괄호 표시 후 꼭 별표를 해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단독 문제로 심화 개념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예를 들어, 가령’ 등의 표지어로 표시됩니다.

### 가정 – Suppose

: 가정은 예시와 비슷하지만, 예시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독해를 하다 ‘~라고 하자’라는 표지어가 있다면 일단 별표부터 하고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대개는 내용의 상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괄호로 묶고 파악하는 것이 정보의 위계를 잡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예시는 앞서 언급한 개념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한 정도의 정보라면, 가정은 개념의 타당성을 증명한 후 그 개념에 맞춰 가상으로 만들어 낸 예시이므로 100% 출제됩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아이디어로요!

### 계산 – Calculation

: 계산식은 < >였습니다. 계산식에서 어떤 변수들이 사용되었고, 그들의 관계가 비례인지 반비례인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독해할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괄호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로 출제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숫자를 바꿔 응용하는 심화 개념의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 )는 문제를 풀 때 다시 읽어야 하는 중요하고 구체적인 정보일 때 표시하는 기호라는 걸 명심하세요!

### 구체적 수치 – Figure

: 구체적 수치는 구체적 년도, kg, m/s, cm, ℃ 등등처럼 말 그대로 구체적 정보를 뜻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선지에서 워딩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괄호하고 넘어간 뒤 문제를 풀 때 다시 한 번 확인해가며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 원인 - Cause

: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 결과와 구분하기 위해 기호를 달리 표시한 거예요. 고난도 독해가 가능하려면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결과 문장을 보고, 이 현상의 원인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가며 독해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독해력을 상승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죠.

보통 '왜냐하면, ~ 때문에, 그로인해, ~ 때문이다.' 등의 표지어로 표기되지만 표지어보다 논리 관계를 생각하는 훈련이 훨씬 중요합니다.

## 부연 - Add

: 부연 설명은 말 그대로 앞의 개념을 받아 구체화하거나 심화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이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그 다음 문장 간의 관계인데 부연 설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내용이 구체화되었는지, 워딩을 어떻게 바꿨는지, 추가했는지, 삭제했는지 등을 또렷하게 파악하며 읽어야 선지에서도 막힘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보통 '이는, 이를 통해, 이에 따라, 다시 말하면, 곧, 즉, 게다가, 바꿔 말하면~' 등의 표지어로 표기되죠.

### ③ 예외

예외적으로, 단, 다만

### ③ 예외

: 이 문장은 쉽게 누락하고 독해하는 경우가 있어 선지에서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대괄호로 표시하여 이전 핵심 개념과 대조되는 예외적 내용임을 확인하며 읽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방법 이해하기〉 – “선지”

① 논리부정 (상반)

$A \leftrightarrow \text{not } A$

: 지문에서 “A”라고 제시했던 내용들을 선지에선 “not A”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오답의 근거로 만들어지는 원리이며 대부분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일치 · 불일치나 개념 이해를 묻는 문제 등 문제 유형은 다양하게 골고루 출제되는 선지 구성의 기준 방법입니다.

애매하고 어려운 개념일수록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논리부정 방법으로 선지를 판별한 후, 미시적 내용을 파악해 보는 게 좋아요 ^^

② 인과 역전

$(A \rightarrow B \nleftrightarrow B \rightarrow A)$

: 인과 역전은 아무 생각없이 선지를 보다보면 쉽게 틀릴 수 있는 유형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일치 · 불일치도 맞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알려드린 방법으로 (원인) → 〈결과〉 분석해 본 친구들은 이 문제도 역시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지문에선 “A 때문에 B가 일어난 것”을, 선지에선 “B 때문에 A가 일어난 것”으로 인과를 바꾸는 형태인데, 세부적으로는

- 1) 선후관계 역전 : “A 다음 B가 일어난 것”을 “B 다음 A가 일어난 것”으로 바꾼 것
- 2) 대소관계 역전 : “A 보다 B가 더”를 “B 보다 A가 더”로 바꾼 것과 같은 경우들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시켜서 분류했습니다.

③ 주체 왜곡

$A\&a, B\&b \rightarrow A\&b, B\&a$

: 주체 왜곡은 말 그대로 “A”라는 주체를 잘못 설명한 경우를 말해요. 여기엔 대상인 “B”를 잘못 설명한 경우도 포함시켜 논의할텐데요. 이것도 크게 보면 ‘논리 부정’과 비슷해 보이는데 ‘논리 부정’의 경우에는 “A”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적절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한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주체 왜곡의 경우는 “A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 a(A&a)”, “B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 b(B&b)”를 “A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 b(A&b)”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7. 수능 반추위 지문같은 경우 (비섬유소 = 녹말), (섬유소 = 셀룰로스) 이런식의 범주인데, (비섬유소 = 셀룰로스) 이런식의 구성으로 묶은 것과 같은 것들이요.

④ 논리곱/합

(and/or, 100%/예외O)

: 논리곱(and-교집합)과 논리합(or-합집합)은 종종 지문과 선지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인데, 무심코 정보들을 흘려보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답이나 오답이 되는 근거로 꽤 많이 그리고 어렵게 출제되니 별표해 두고 보는 걸 추천합니다.

논리곱(and-교집합)은 ‘어떤’에 해당하는 내용 즉, ‘일반적으로, 보통, 대개’ 등의 표현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표현 문장이예요. 논리합(or-합집합)은 ‘모든’에 해당하는 내용 즉, ‘100% 예외 없는 - 항상, 반드시, 모든, 모두’ 등의 표현처럼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 문장이죠. 보통, 본문에서 논리곱으로 표현한 것을 선지에서 논리합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둘을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오답/부재

: 오답/부재는 말 그대로 계산식의 경우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답이 아예 지문에 존재하지 않거나 틀린 설명을 말해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발견하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어요.